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0 가을 (통권 제9호)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 시에의 초대 □

수선화에게

정 호 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열림원)에서

□ 同門斷想. 1 □



이 진 희

실감할 수 없는 사반 세기

딱히 슬픈 것도 아닌데, 동문회로부터 청탁 받은 이 단상의 첫 행을 시작하는 순간 그냥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72학번이니까 대학 졸업반 때가 꼭 4반세기 전이었다. 나에게서는 진정 실감 나지 않는 사반 세기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내 상념의 빛깔은 별로 퇴색되지 않았으며, 생을 향한 강렬한 회의는 여전한데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니!

그 시절의 우리가 지금의 젊은 세대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의 젊은 우리는 모두가 가난했으며, 대신에 젊음의 낭만 하나만큼은 자유로이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의 칠정(七情)과 오욕(五慾)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 같다. 100원짜리 한 장의 여유가 생기면 사랑하는 친구와 둘이서 학교 근처의 '송실 다실'이나 '은모래 음악실'에 갈 수가 있었다. 특히 '송실 다실'의 DJ는 내 신청곡을 많이 선택해주었다.

그 때 대학가에서 애창되던 제1의 가요는 '4월과 5월'이 노래한 '화'였다. '화'의 가사 중에는 '젖은 짚단 태우듯 또 하루를 살았다'는 구절이 있었다. 여린 가슴 한 자락을 흥건히 적셔주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기조차 한 것은, 나는 그 시절에도 젖은 짚단 태우듯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토록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요즘도 젖은 짚단을 태우는 듯한 나날을 살고 있다.

3학년 1학기였던가? 화요일의 오후로 기억되는 J 교수님의 예술 철학 시간에는 언제나 비가 내렸다. 교수님의 열감이 비의 낭만을 더했는지 아니면 빗방울의 흠날림이 열감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는가는 알 수 없어도 아무튼 그 시간의 우리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다.

그 날의 철학도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직장과 집을 오가며 시계추처럼 정해진 일상을 되풀이 할 뿐이다. 졸업 후 직업 전선의 연약한 병사로 팔을 걷어붙인지도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때로는 생존에서 파열된 파편의 한 조각이 심장을 관통하고, 어떤 때는 갈기갈기 찢기운 진실의 부스러기들이 내 안에서 무서운 병균으로 증식하고 있음을 느낀다. 눈물이 어려도 핏방울이 엉기어도 그것을 닦아낼 하얀 솜조각 하나를 나는 갖지 못했다.

물론 이 같은 생활의 허무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존재는 나 뿐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시인 노천명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려간다'고 읊조리지 않았던가? 험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은 상처받기 싫다는 내 넋두리에 학번이 같은 친구는 말했다. "애 그래도 너한테는 직장이 있잖아? 아침에 깨어나 어딘가 갈곳이 있다는 건, 그리고 나를 (3면 아래로 계속)

□ 同門斷想 2 □

누구의 이야기냐?

정영환

60년대 초 미국의 블랙파워(black power), 흑인 인권에 관한 열정이 타오르던 때였다. 윤리학을 가르치시던 김성목 교수님께서 인권에 관한 열정을 하셨다. 스무 명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처음으로 흑인들을 보니 좀 무섭더라는 백인들이 오늘 당해도 싸다느니... 그러면서 이야기는 바뀌어 갔다. 사실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는 한국일지 모른다는 거였다. 왜냐하면 세계 큰 도시에 차이나타운(China town)이 다 있지만 유독 서울에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교수님은 인종 차별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교수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인종차별이란 죄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흑인이 내 딸을 달라고 하면 나는 못줄 것 같습니다" 하고 약간은 상기된 얼굴로 습관처럼 약간 머리를 흔들며 대답을 하셨다.

그 이후 나는 때로 궁금했다. 죄일지라도 나도 어쩔 수 없이 인종차별주의에 속한다는 교백적 말씀인지, 싫다는 것과 죄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인지,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자기중심의 존재란 말씀인지, 또 남의 문제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와 내 문제로 부딪칠 때의 다른 양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지가 늘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갈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을 찾아가는 동행자라는 것을. 그리고 갈등 없이 자신 만만한 삶, 그것이 교만이자 불신, 즉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것이요, 또 다른 면, 죄절과 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불신 곧 배신이란 것을. 그래서 남의 부부싸움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는 절대로..."라고 말하는 철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나이 먹은 용기와 패기가 다 죽어버린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 이것도 살아온 인생의 지혜런가 하고 자위해 보기도 한다. 그래서 나도 인종 차별주의를 싫어하지만 내 딸은 흑인에게 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딸은 없고 아들만 셋이다.) (34회·서울 청운교회 담임목사)

(2면에서 계속) 필요로 하는 일이 기다린다는 건 우리 연륜에 너무 복된 생활이야. 나 같은 사람 기분 전환 해보려고 공들여 화장하고 옷을 차려 입고 나서봐도 같긔이라고는 아파트 근처 삼가가 아니면 백화점의 지하 식품점..." 대학 시절엔 어지간히 멋 부리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원어로 읽고 데카르트를 탐독하던 친구였는데, 그로부터 사반 세기가 지난 오늘 그녀의 분위기가 언어는 슬프도록 달라져 있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48회·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편집부장)

□ 同門斷想 3 □

철학 안의 만남이 그림다



임 장 순

내가 철학과 1학년 첫 강의를 들었을 때의 일이다. 현대 철학 원서 강독 시간이었는데 강의를 맡았던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 주신 것이 기억난다.

“철학에 입문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부한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학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해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누군가의 이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곧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철학은 이미 증명된 확고한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노력 자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철학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 4년 동안의 철학 공부와 졸업 후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을 통해 그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여러 철학자들의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었지만 인생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 남들 앞에서 확신에 찬 주장을 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내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자신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다. 왜냐하면 날카롭고 집요한 철학적 비판을 견디어낼 신조를 좀처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이 세상을 저돌적으로 살게 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나,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려는 차분함은 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고독을 느낀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세계화다 무한 경쟁이다 정보화다 하여 세계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사람보다는 불건을 잘 만들고 잘 파는 데에 골몰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인생의 의미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또는 올바른 사회의 모습 등에는 별 흥미가 없고 귀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에게는 확실한 결론도 없고 생존 경쟁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논의는 시간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학적 고민을 좋아한다. 그것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야말로 인간이 기에 가능하고 인간을 동물과 구별된 다른 차원의 존재로 격상시켜 준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더욱 절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즈음에 와서는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과거 철학도들이 그리워진다. 사회 생활의 필요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닌 철학 안에서의 인간적 만남이 그림다. (60회 ·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 나의 학위논문 ◆

하이델베르크대학, 1999

한국 개신교회 사회봉사의 역사와 그 사회봉사적인 사역의 갱신에 대한 전망 — 예장 통합내에서의 한 사례 연구 —



이 승 렬

필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신학부에 속해 있는 디아코니아연구소(DWI: Diakoniewissenschaftliches Institut)에서 기독교 사회봉사의학의 디플롬(Diplom) 학위과정에서의 연구와 독일 기독교 사회봉사의 선구자인 요한 힌리히 뷔헤른(J. H. Wichern)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독일교회의 사회봉사의 종합적인 신학과 역사를 공부할 수가 있었다. 이 과정에는 필히 성서신학적, 조직신학적, 역사신학적, 실천신학적, 선교신학적, 사회사업, 사회복지학, 사회교육학, 기독교윤리의 학문적 영역에서의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신학적 근거와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독교적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기독교 사회봉사의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필자는 박사학위과정에 들어가 한국 개신교회의 기독교 사회봉사의 갱신과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역사정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통사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시대적인 대표성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과 교회를 선정하고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의 일반적인 역사와 함께 그 중심적 인물과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을 기독교 사회봉사신학적 차원에서 서술하고 분석하였다. 시대적으로는 초기 선교사들의 시대로부터 1998년 상황까지 한국 개신교회 역사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내의 한 사례연구라는 부제를 달고서 교단에 국한된 의미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봉사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자는 서론적 의미에서 한국의 다양한 재래종교(무교, 불교, 유교, 도교)를 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결코 기존의 전통적인 재래종교로부터 무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특별히 재래종교들의 사회윤리적 가치관과 그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1장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초기 선교사들의 사회봉사적 선교(1876-1906) 시대에서는 공식적인 서구 선교사들의 입국이전에 있었던 기독교와 접했던 역사들과 구출라프, 토마스, 로스 등의 선교사들의 행적 또한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의 초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의료선교, 교육선교, 문서선교, 복음전파 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선교활동에 사회봉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사회봉사를 선교의 방법으로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2장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의 기독교 사회봉사(1907-1945)는 한국 개신교회의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일곱 명의 목사 가운데 한국 초기 기독교의 중심적인 지도자요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와 평양의 장대현교회의 목회와 활동을 한국 개신교회 사회봉사의 시작의 의미로 조명하고 서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사에서 길선주 목사는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주도적인 지도자이며 3.1운동의 33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매우 보수적인 근본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근본주의신학과 교회의 사회참여적 사회책임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사회봉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길선주 목사의 목회는 3.1운동 이전까지의 모든 목회를 사회봉사신학적 의미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봉사활동을 겸한 목회였음을 밝힐 수가 있었다. 필자는 길선주 목사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그의 유품으로 남아있는 귀중한 사료들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3장 해방 후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봉사(1945-1969)는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대교회의 사회봉사적 활동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개교회적 사회봉사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한경직 목사의 사상과 신앙을 분석하였고 영락교회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분석하였다.

4장 산업화시대의 사회봉사(1960-1998)에서는 도시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 민중신학, 민중교회를 기독교 사회봉사적 의미에서 분석하였고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에큐메니칼적인 기독교사회봉사의 대표적 인물로 두레 활빈교회의 김진홍 목사의 삶과 사상 그리고 두레공동체운동의 전반을 사회봉사적 의미에서 분석하였다.

5장 예장(통합) 교단을 한 사례로 삼아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봉사의 갱신에 대한 전망 부분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이루어진 사회봉사의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다양한 기독교 사회봉사의 단체와 활동의 모델들을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개신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봉사의 새로운 갱신을 위하여 몇 가지의 전망을 제시함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사마니즘적인 신앙경향의 극복이요 둘째는 교회성장 이데올로기의 극복이요, 셋째는 선교정책의 갱신이요, 넷째는 신학교육에서의 사회봉사의 필수적인 수용이며 마지막으로

는 집사직분의 갱신인데 사회봉사적인 전문성을 띤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 교회 내에서 사회봉사에 관한 많은 관심들과 학문적인 접근은 주로 성서신학자들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기독교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필자는 기독교 사회봉사신학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한국 개신교회의 디아코니아(기독교 사회봉사)의 발전과 갱신에 이바지 하고자 특별한 사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46회 · 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겸임교수)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김기순)

□ 同門을 찾아서 3 □

무림의 고수 '좌백'을 만나다...

— 무협소설 작가 장재훈 동문(65회)과의 인터뷰 —

· 인터뷰: 이성준(동문회 간사·대학원 석사과정), 김정미(학부 4학년/정리)

- image 1

민주화 운동의 전력을 가지고 뚝뚝하게 사회로 진출하여 21세기 변화의 중추로 자리매김되었다고 신문·방송에 오르내리는 386세대! — 장재훈 선배와 만나기 전에 떠오른 생각 하나.

얼마 전 개봉한 한국 영화 「비천무」를 시작으로 다시 무협이라는 장르의 유행을 예감했는데... 과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란 순수한 호기심에 떠오른 생각 둘. — 재기발랄(才氣潑刺)한 야인(野人)!

철학은 전공이전의 전공이라 할까?

사실 충천연색 염색머리를 하고, 힙합바지를 입고, DDR을 즐기는 00학번 n세대 철학도도 어쩐지 어색하지만, 철학을 하고 무협을 업으로 삼고 있는 고학번 선배도 아무래도 유별나 보인다. 검 하나로 결투를 벌이고, 하늘을 날고, 땅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황당무계한 무협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 내는 선배를 만났다. 그래서 처음 던진 질문이 무협소설 작가가 된 계기였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결국엔 아르바이트 삼아 쓴 소설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인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밤새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철학 책을 재밌다고 보는 '신기한 놈' (?) 이었다고 하니...^.^ 기인과 무협작가는 어쩐지 아귀가 맞아 보인다.

선배는 사회철학, 특히 헤겔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그의 대학 때 모습이 정치적 민주화를 갈망하던 386세대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대학 1학년 때 철학 책 100권 읽기를 목표로 정해 97권을 달성했다고 하니 이런 노력들이 어찌면 지금의 선배를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처음 소설을 내고 신문에서 인터뷰했을 때 철학과를 나온 경력이 도움이 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철학은 모든 일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애. 직접적인 것보다 살아가는 데... 철학은 전공 이전의 전공이라 할까? 철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아무 것도 전공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구. 인문학의 기본으로서... 무협소설이라고 해도 무협이라는 무대를 펼쳐놓고 사람 사는 얘기를 쓰는 거라구. 무림이라는 세계는 더군다나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사람 사는 모습이 과장돼서 민감하게 보여진다구. 이런 걸 쓸 때 나름대로(어디까지나!)

생각한 인간관이나 사회관이 배어 들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철학 전공 안 한 사람보다 그런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처음엔 재미 삼아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웃을 까야'라는 생각으로 소설 안에 아스퍼스나 니체, 헤겔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철학자의 유명한 문구 등을 살짝 바꿔 넣기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

철학과 동기들 애길 해달라는 성준 선배의 의중을 눈치 챘는지 그는 철학과 나와서 무엇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얘길 필두로 의미심장한 얘길 해주었다.

"장래는 상상력이나 창조력 등이 인정받는 사회가 반드시 와. 그 전에 조직 사회 속에서 맞물려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은 특히 IMF 이후 평생 다니던 직장인데 어느 날 쫓겨나니까 자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 걸 발견한 거야. 딱 데 가서 할 게 없는 거지. 우리는 많이 굶어 봤잖아. 굶는 것은 두렵지 않아. 못 할 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동기들 만나면 우리가 차라리 잘됐다 그러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건 좋지. 보장이 안 되는 일이고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말이야. 알다시피 이쪽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재능이 있고 거기에 운이 따라주고 그래야 한 사람 뉘를 하는 거잖아. 아니면 굶어죽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지. 나는 중간만 하면 되니까 안 통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불안해하더라고. 사회가 진보되는 방향은 분명히 그쪽인데 그럼에도 많은 우려가 있는 거지.



장재훈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재밌어서 하면 돈이 안 벌려도 좋고. 돈 벌리면 즐거운 거고. 그런 것 같애."

상상력이 고여 있는 우물

「독행표」에선 표사인 아버지가 음모에 의해 죽고, 갈곳도 없는 열 살 넘는 소년 용유진이 우연

히 낯선 사람들을 만나 내기에 걸린다. 그것은 그가 10년 후에 무림의 10대 고수와 겨를 만한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세요.)

선배를 만나기 전 일종의 사전 답사라고 읽었던 이 책은 처음 읽은 무협소설이었지만 독특하게 재밌었다. 자신의 소설은 전문용어가 많아서 (사실 한자 세대가 아닌 나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처음엔 쉽게 읽혀지지 않지만, 사실 그 용어들은 도교나 불교 쪽 단어를 적당히 바꿔서 쓴다고 했다. 그리고 보면 철학과 무협소설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독행표」를 읽고 황당하고 우연한 사건이 연속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소위 기연(기이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사람이 어찌지 못하는 힘에 의해 다른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또한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어떤 거라면 가치가 있다는 얘길 했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는 선배는 상상력이 풍부할 것 같다는 내 얘기에 그는 주로 책이나 만화보고 놀다가 아이러니한 일이나 묘한 상황이 표현된 함축된 말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에 살을 붙인다고 했다.

“모티브를 주변에서 얻고 또 그래야 만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무협은 그야말로 스토리도 황당하고 인간형들도 굉장히 과장됐잖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리 없지. 하지만 주변의 흔한 얘기와 전혀 다른 차원인데도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많다면 좋은 작가인 것 같아.”

선배가 생각하는 상상력이란 고여있는 우물이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곳에서 물을 퍼내는 일이라고 했다. 언젠가 우물은 바닥나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우물이 바닥날 것 같지는 않았다. 얼마 전엔 역사무협 장르의 시나리오를 팔았고(?), 또한 새로 창간된 무술잡지에도 연재를 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우물의 깊이를 잴 수 없지 않을까? 또한 그것을 둘러싼 일상 역시 심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사(內事) 혹은 야사(野史)

지금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 화성 땅에서 4마리의 개들과 한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무협소설을 쓰는 특별한 여성과 3년째 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부인과는 공모전에 응모한 신인과 심사위원으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니 그것 또한 평범한 만남은 아닌 듯 보였다. 화랑의 애길 썼던 부인의 작품을 읽고 신인치고는 상당히 매끄러운 솜씨에 관심이 갔다고 했는데, 이후 그녀는 게임 시나리오를 비롯한 여느 공모전에서 계속 입상하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무협소설 부부 작가란 그리 흔치 않는 일기에 보기 드문 조화란 생각을 하며 잠시 부러움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후 우리들의 대화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까닭은 먼 곳에 사는 선배가 오래간만에 학교에 나와 동양 철학의 교수(?)인 다른 선배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비록 주객이 전도되어 인터뷰 아닌 답소가 되어버렸지만, 옛날 얘기에서부터 중국 무술, 동양 철학, 그리고 여러 잡다한 얘기로 넘나들었기 때문에 '흑산도' 복 요리집이 더 화기애애했다.

- image 2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에 주경야독 머리를 쥐어짜며 펜을 휘두르는, 책상에 앉아 있는 만화 주인공 - 내가 상상했던 무협 작가이다.

사람 좋은 깔끔한 인상에 개를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인 없다더라!), 중국 무술을 배우고, 재밌게 얘기하는 작가 '좌백' - 이것이 바로 내가 잠시 만난 선배에 대한 느낌이다.

따치며...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직접 그 대상을 만나 대화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그 만남이 짧다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술가라면 당연히 만나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과거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 하물며 예술가가 작품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과거와 대화하듯 작품들과 대화하며 한 예술가를, 나아가 현실과도 담았고, 현실을 뛰어 넘기도 한 인간군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좌백'을 만나는 길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더 볼 것을 권하며 이 글을 마친다.

동 문 회

1. 동문 동정

▶**이상강** 동문(51회) 7월 2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대학원 재학 중 민청련 활동을 한 바 있으며, 수료 후에는 향리(속초)로 낙향, 기업을 이어받아 「태동상회」를 운영했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주경란(숭실대 영문과 51회 졸업)씨와 삼민(16세), 미경(15세) 남매가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연락처) 033-637-2679.

▶**김선욱** 동문(55회·숭실대 감사) 6월 17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00년도 한국칸트학회 춘계 학술 발표대회(주제: 칸트와 독일 이상주의)에서 “한나 아렌트의 판단 이론과 합리성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곽종구** 동문(62회·도서출판 한울 편집과장) 그 동안 재직하던 세계사를 그만두고 99년 6월부터 도서출판 한울 편집과장으로 재직중이다.

▶**서경석** 동문(65회·사회복지사) 8월 3일 부친상을 당하였다.

▶**권일훈** 동문(67회·서울 신천교회 전도사) 2000학년도 제2학기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장미성** 동문(68회) 뉴욕주립대학(버팔로) 대학원에 유학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출국하였다. 장 동문은 모교 대학원에서 『이데아론과 변증술: 『파르메니데스』편의 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1998년 2월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이지영** 동문(72회·서울 성일중학교 교사) 2000학년도 제2학기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과정에 진학하였다.

▶**우영웅** (학부 4학년) 7월 15일 서울 남성교회

에서 김영선(한세대 신학과 졸업) 양과 회축을 밝혔다. 새로 꾸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빈다.

철 학 과

1. 철학과 교수 동정

▶**조요한** 박사(명예교수) 서울대 미대 학장을 역임한 조각가 김세중씨를 기념하여 세워진 김세중기념사업회가 제정한 한국미술저작상의 제3회 수상작으로 조요한 교수의 『한국미의 조명』(열화당)이 선정되어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원대회의실에서 수상식이 열렸다. 수상을 축하한다.

한편 조요한 교수는 저작상의 상금 전액을 장학 및 연구기금으로 써달라며 철학과에 기탁하였다. 철학과는 기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대로 조 교수의 뜻을 받들어 희랍철학과 미학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데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삼열** 교수(사회철학) 2000학년도 3월부터 7월까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귀국하였다.

▶**김광명** 교수(독일근·현대철학)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연구년을 맞이하여 미국 템플대학에 체류중이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2301 Woodward St. Evergreen Manor A.P.T. K5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15 U.S.A. [전화] 215-677-0847.

▶**백도형** 교수(현대영·미철학) 철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철학연구』 49집(2000년 여름호)에 “자연법칙의 필연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II. 학부 및 대학원 소식

▶ **학부 철학과**는 지난 8월 18일 있었던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7명의 문학사를 배출하였다. 현재 재학생 수는 90여명이다.

올해에는 1학년 신입생을 「역사·철학과군」으로 모집하여 70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내년 3월 철학과와 사학과 중에서 전공을 배정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가을 학기에 4명의 일반 편입과 1명의 학사 편입이 있었다: (일반 편입) 이선아 (경기대 식품가공학과), 박희진 (경원전문대 전자계산학과 졸업), 김신웅 (대신대 신학과 졸업), 허인영 (서울예술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학사 편입) 권기웅 (대신대 신학과 졸업).

▶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지난 8월 18일 있었던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1명의 철학박사를 배출하였다: 신응철 (학위논문: 『갯시러 문화철학에서의 인간연구』).

한편 가을학기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에 각각 1명과 3명이 입학하였다: (박사과정) 유위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 졸업), (석사과정) 박채훈 (70회), 김성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화퇴 (연변과학기술대 졸업). 현재 철학과 석·박사과정 재학생은 모두 21명이다.

▶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회장: 구태환)에서는 9월 말경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발표자는 최근에 학위를 받고 귀국한 김선욱 (55회 · 송실대 강사) 박사와 박삼열 (60회 · 관동대학교 겸임교수) 박사로서 예정되어 있다.

▶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에서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월례발표회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심의용 (62회 · 박사과정 수료) 씨가 "이천(伊川)이 바라는 운명"을 발표했으며

그에 대해 실총수(대학원 · 석사과정 졸업) 씨가 논평을 했다.

7월에는 구태환 (64회 · 박사과정) 씨와 윤은주 (64회 · 박사과정 수료/ 본교 문예창작학과 조교) 씨가 각각 "조선후기 사회상과 홍대용의 기(氣) 개념"과 "권력과 폭력,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듣기"를 발표하였고 그에 대해 김시천 (66회 · 박사과정) 씨와 김광현 (64회 · 박사과정 수료/ 본교 기독교사회연구소 연구원) 씨가 각각 논평을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철학과 사무실 (820-0370)로 문의하기 바란다.

송실철학강좌

▶ **철학과는 동문회의 후원** 아래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송실철학강좌를 개최하였다. 매 학기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 있는데, 금년도 2학기에도 9월과 11월에 열 계획이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주소 업데이트

▶ **유연왕** 동문 (35회 · 영신교회 담임목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618-154번지 (전화) 833-2544

▶ **김재명** 동문 (52회 · 성신중앙교회 목사) 서울 마포구 성산2동 450 시영아파트 2동 1302호 (전화) 307-5416 (성신중앙교회)

▶ **박경신** 동문 (55회 · 대성중학교 교사)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32-4번지 삼성 한사랑아파트 103동 1003호

▶ **김충현** 동문 (59회 · 서울중앙교회 목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2-8 서울 중앙교회

▶곽종구 동문(62회·도서출판 한울 편집과장) 경기 광명시 하안3동 260번지 주공아파트 805동 405호

(전화) 016-299-5828 [직장] 02-326-0095

▶신응철 동문(64회·수도침례신학교 강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299-17번지

(전화) 02-824-8061/ 019-246-8061

▶오상봉 동문(65회)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보성은하아파트 110동 2311호

▶배한진 동문(66회·경인일보 기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290-4 용인빌라 1동 304호

(전화) 031-321-5045

▶권일훈 동문(67회·신천교회 전도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47-7번지

(전화) 02-852-1545/ 011-496-1545

▶고영삼 동문(70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94-10번지

(전화) 02-822-6692/ 011-9092-0325

▶조찬주 동문(71회·MBC 예능국 PD)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205-145

(전화) 02-822-4227/ 029-369-4227

[직장] 02-789-3709

▶박신영 동문(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서원빌라 가동 302호

(전화) 019-313-5898

기 타

1. 동문회 주소록 제작

▶철학과 동문회에서는 금년 안에 주소록을 새롭게 다시 제작할 계획이다.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여 동문들의 개인 홈페이지 주소와 전자우편(E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와 팩스번호 등도

함께 등재할 계획이오니 널리 알리어 필요한 정보로 가득 채워진 주소록이 제작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 연락처는 동문회 사무실(전화: 820-0370/ 전송: 824-4382).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0 여름 (통권 제9호)

2000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이 성 준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